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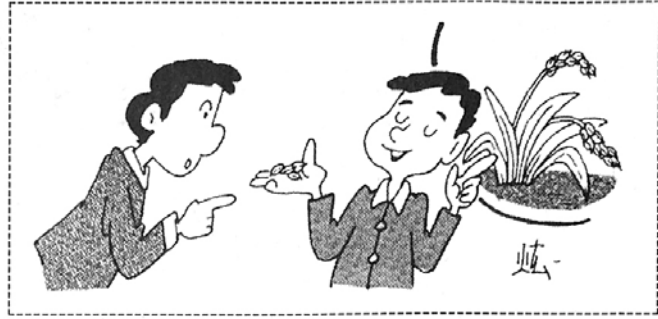
지 상 법 석

오늘날 과학문명 뿌리

21세기에는 신을 믿는 종교 사라지고 마음 믿는 종교만 남는다 서양목사 예언

다시 말하면 천상의 첫 하늘인 사왕천은 우리 시간 단위로 9백만세를 산다는 말이므로 그만큼 시간의 흐름이 더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오십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왕천은 겨우 하루낮 하루밤 즉 일주일이 흐른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곳 나이로 오백세가 일생인데 지구시간으로는 9백만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왕천보다 한단계 멀리 있는 도리천은 지구에서의 백년이 그곳의 일주일이요 그곳 시간으로 천년을 사는데 지구시간으로는 2천7백만년이 됩니다. 또 그위의 수야마천은 도리천의 배수(倍數)이고 도솔천은 수야마천의 배수이며 그위 하늘은 또 그

슬퍼하면 미생물체들도 슬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더불어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내가 자살함으로써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은 최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먹고 있는 마음에 따라 수백억의 생명체들은 희로애락을 갖습니다. 내가 옳은 일 좋은 일을 하여 남에게 칭송을 듣고 자신 역시 기쁨을 갖게 되면 내 몸에 의지하고 있는 수백억의 생명체들도 기뻐하게 되고 내가 번뇌망상에 빠져 허둥대게 되면 그 많은 생명체들도 우울해지고 슬퍼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지니고 쓰느냐에 따라 교는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고 결론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종교가 강고리 없어지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종교학자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신을 믿는 종교는 사라지는 대신 마음을 믿는 종교만이 남게 된다. 마음을 믿는 종교는 불교다. 불교는 신을 부정하고 마음을 강조한다. 모든것은 마음으로 이뤄진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주인공인 것이고 우리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온갖 물건은 만드는 것도 마음인 것입니다. 기실 신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모든 중생이 다 부처라는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사실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오히려 타당할 듯한 경우도 있는데 부처님은 어찌하여 우리 모두를 부처라고 하셨는가? 인간이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도 생각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속단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발달하여 많은 일을 훌륭하게 해 주고 있어서 놀라운 일이지만, 인간은 컴퓨터보다 훨씬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더욱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10을 3으로 나누면 컴퓨터는 그것을 3.33...으로 기억해 둔다. 여기에 3을 다시 곱하면 9.99...가 된다. 다시 말해서 10을 3으로 나누고 거기에 3을 곱했을 때, 무한히 10에 근접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10이라는

각각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59 양행진 무한한 가능성

직 자신과 법을 의지하여 정진하라고 하셨을 것이다. 폭식이 자라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한 일의 실패를 아무리 들여다 본다고 하여도 거기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돌아나며 잎이 번성하여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기는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사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생의 모습을 볼 때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아뢰야세계는 35억 년 중생 삶의 번뇌 망상이 집적되어 여러의 덕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뢰야의 덕은 끊어지지 않아서 마치 단만 숨겨져 있을 뿐이다. 마치 설산의 본체는 눈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으나 그 안에 자리하고 있고, 감란한 밤하늘 어

인과론은 원자 물리학등 현대과학 이론 골격 "만물이 다 마음에 있다" 진리 믿을때 자유누려

많은 생명체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늘 옳고 좋은 일만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세계적인 종교학자이자 기독교 목사인 서양의 한 원로는 그의 저서인 '21세기의 종교'에서 현해 세계의 종교가 21세기에 이르면 신(神)을 믿는 종교는 자연도태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 힌두교, 회교 등 종교의 대부분을 가리킵니다. 신을 믿는 종교가 자연도태 되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을 믿는 종교에서 신의 권능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21세기에 접어들면 인간의 두뇌가 발달하여 소위 신의 권능을 인간이 모두 해내게 된다." 예를 들면 성서에서 "하늘을 나는 권능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하였는데 우리 인간은 이미 오래전에 비행물체를 제조하여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또 성서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작은 과일을 크게하고 작은 동물, 식물을 엄청나게 크게할 수 있었다 하였는데 현재 우리 인간은 이를 모두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인간이 모두 해내고 있으니 신을 믿는 중

이라는 것도 마음안에 있지요. 마음으로 신이다 인간이다 하고 분별함으로써 신도 인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을 여고하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 밖에는 아무 것도 없으므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인 것입니다. 21세기에 이르면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여 비과학적인 것은 자연히 사라지고 참다운 종교요, 마음의 종교인 불교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목사출신의 종교학자는 사실 자기 생명을 걸고 언급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사이면서 기독교가 도태 된다는 말을 하려면 지극히 어려운 것이지요. 공자(孔子)의 오도일관지(吾道一以貫之)에서의 일(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맹자(孟子)를 비롯하여 여러 성현들이 한결같이 '일(一)이란 곧 인(仁)'이라고 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자(朱子)는 '일(一)이

마음자리 깨달으면 온갖 번뇌 눈독듯 녹고 본심을 망각하고 살면 육도윤회 수렁서 헤매'

떨어지는 오동잎만 봐도 계절을 알듯 인간의 사고능력 분별세계 뛰어넘어

것을 알지는 못한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3.14... 라는 식으로 소수점 이하 수천자리까지 계산할 수가 있었지만, 그것이 원주와 지름의 비라는 수학에서의 직관적인 의미를 인간처럼 이해하지는 못한다. 또한 현재의 컴퓨터는 문 들에 보이는 교양이 피리를 보고 그 뒤에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한 잎 떨어지는 오동잎으로 천하의 가을을 알기도 한다. 언어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이다 맛을 본 사람이라면 사이다 맛이 짜릿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사이다의 맛을 마음 속에서 그려낼 수 있다. 이 때문에 또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별을 넘어선 절대의 세계가 언어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말로써 말을 떠난다는 (依言遺言) 것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진화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인간 지능의 발달은 인간을 그 어느 동물보다도 탐욕스러운 것으로 만든 부정적인 일면도 있으나, 이상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포착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달을 가리키는 손에 집착하지 않고 달을 볼 수 있기도 하며, 8만년 법문을 다

불교소설의 진수!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도 구도자가 됩니다. 대륙의 신라왕자 신용산 장편소설 백운 장편소설 연선도인 1 2 현대 첨단 과학으로도 해명이 불가능한 기적의 실체인 등신불로 화하여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신라승 김교각 스님의 생애를 그린 책. 가장보살 김교각! 입멸 후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가? 그는 결코 왕자로서의 자존심과 구법승으로서의 겸허함을 잃지 않았다. 신국판 / 382쪽 / 값7,000원 우리출판사를 아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전하는 최대의 선물! 울곡에겐 훌륭한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었다 서신대사에게는 걸출한 승승 연선도인이 있었다. 우리나라 조계종의 거봉, 6조 부용당 연선도인! 그로 인해 청허 휴정 · 부휴 선수의 양대 산맥이 힘차게 뻗어 나가 우리 불교계 전체를 이끄는 햇빛이 되었으니...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 5056 팩스: 393-9696